

[사회]

대리 기사·업체 갈등 증폭

일부 업체, 휴대전화 차단 영업 방해

기사협회 “파업·집회 강경 투쟁 계획”

광주지역 대리기사들이 대리운전 업체의 부당한 대우에 반발해 한시적 파업 등 단체 행동에 나선 가운데 일부 업체가 기사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보복성 조치를 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5일 광주 대리기사협회에 따르면 광주의 한 대리운전업체가 지난달 29일 협회 회장과 부회장의 ‘휴대전화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차단했다.

‘휴대전화 대리운전 프로그램’은 고객에게 걸려온 전화를 업체에서 받

아 이를 대리운전 기사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이를 기사는 해당 업체와 프로그램을 공유한 다른 업체 8곳에서도 ‘콜(Call)’을 받지 못해 일주일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협회 측은 이를 단체 행동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판단하고 이날 대책회의를 열어 파업 및 항의집회, 법적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강경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 대리기사협회 강철웅(51) 부회장은 “대리운전 기

사들이 업체의 부당한 대우에 반발, 한시적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항의 집회를 하고 있지만, 대리운전업체들은 아무런 교섭 의지조차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힘없는 기사들로서는 업체의 부당한 조치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리기사들은 지난달 18일부

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자동차 보

험료 인하(75만원→65만원) ▲풀 수

수료 부과금 인하(2천500원→500원)

▲벌금제도 폐지(한 건 당 500원~1

천원) 등을 촉구하며 광주지역 21곳

대리운전업체를 대상으로 항의집회

를 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소한추위 어디 갔나요?”

‘1년 중 가장 춥다’는 소한(小寒)인 5일 담양군 무정면 마늘 재배 농민들이 마늘밭 보온작업을 하고 있다. /나영주기자 mnja@kwangju.co.kr

검찰,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징수 재수사

시민단체 “부당이득 쟁겼다” 고발 … 불법성 여부 가리기로

검찰이 지리산 천은사 일대 문화재 관립권 징수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재수사를 하기로 했다.

5일 국립공원 시민연대와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천은사 측이 문화재 관립료를 징수해 부당이득을 쟁겼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재수사를 최근 지시했다. 대검은 논란이 됐던 문화재 보호구역의 범위를 ‘천은사 일원’으로 막연하게 규정하지 말고 문화재 보호법 등에 따라 엄

밀히 따지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다시 수사를 맡게 됐다.

천은사는 구례군과 전북 남원시를 연결하는 861번 지방도에 차량 차단기를 설치해 놓고, 이곳을 통과하는 모든 이들에게 문화재 관립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남원이나 노고단을 가려는 사람은 다른 길로 돌아가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연대는 광주고검에 항고했으며, 검찰은 지난해 2월 항고를 기각했다. 시민연대는 이에 불복해 대검에 재항고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암, 도계암 등 주변 암자를 문화재의 범주에 포함해 천은사를 관리하지 않는 차량 통행객 등에게도 관립료를 받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2007년 8월 천은사 측을 사기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불기소 처분됐다.

이에 따라 시민연대는 광주고검에 항고했으며, 검찰은 지난해 2월 항고를 기각했다. 시민연대는 이에 불복해 대검에 재항고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행정 인턴제 겉돈다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 배정 인원 못 채워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이 배정된 교육(행정) 인턴 수도 채우지 못하는 등 행정 인턴제가 겉돈다.

5일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면접 결과 광주는 34명 배정에 36명이, 전남은 55명 배정에 54명이 면접을 했다.

하지만, 교통 등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이나 특수교육 등의 분야는 지원자가 없거나 일부에만 편중돼 광주는 3명을, 전남은 11명을 채우지 못했다.

광주는 7개 분야 가운데 특수교육 지원과 학교안전지원단 등 3개 분야에서 각 1명씩 미달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현재 “소방공무원 노조 가입 제외 합헌”

헌법소원 기각

소방공무원을 노동조합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 공무원노조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소방공무원 A씨가 “소방공무원을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결사의 자유, 근로3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7대 2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의 공공성과 신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조항으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해 소방공무원의 단결권 또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소방행정은 재난 관리의 중심 업무를 수행하는 바, 현 시점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때 예상되는 사회적 폐해가 너무 크고 소방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공무원보다 근로조건을 두텁게 보호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는 노동부 6~7급 공무원들이 “공무원노조 설립 최소단위를 ‘행정부’로 규정해 노동부만의 노조 결성을 제한한 것은 단결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공무원노조법 제5조는 노조 설립 최소단위를 국회, 법원, 천재,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조합 활동과 단체교섭 체제의 효율화를 위해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단위별로 공무원노조를 결성토록 최소단위를 규정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 단결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겨울가뭄 목타는 전남

해안·섬지역 2만5천여명 물 부족 고통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된 가뭄이 겨울 들어서도 해소되지 않으면서 전남 해안·섬지역 1만1천가구, 2만5천여명이 물 부족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운반·제한급수를 하는 곳은 18개 시·군 188개 마을로 1만1천 224가구, 2만5천905명이 물을 옮겨오거나 시간제·격일제 등으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소방차나 급수선을 통해 물을 받고 있는 곳은 5개 시·군 23개 마을, 768가구, 1천668명이며 시간제나 격일제로 급수가 제한되는 곳은 16개 시군 165개 마을, 1만456가구, 2만4천237명이다.

여수는 소라면, 남면, 화양면 등 18개 마을 1천125가구 2천799명이 지난해 8월부터 물을 운반하고 있으며 순천은 30개 마을 1천264가구 3천300여명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곡성군 24곳, 강진군 13곳, 구례군 12곳, 광양시 10곳 등도 물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주민들이 이 식수난을 호소하고 있다.

상습가뭄지역인 신안군은 마을이 4곳에 불과하지만 2천807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가구 6천552명이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가장 심각하다.

임자면 임자리는 1천여명이 하루 20t의 물로 버티고 있으며 흑산면 진리와 예리, 도초면 수향리

는 지난해 9월부터 3일째 급수가 일상화됐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59억원을 들여 여수시 등 8개 시·군 70개 마을의 관정을 개발해 이 중 35곳의 운반 제한급수를 해제하고 나머지 35곳에는 현재 관정을 개발 중이다.

1차 지원에도 불구하고 식수난이 해소되지 않자 전남도는 정부에 2차 지원을 요구해 이달 안에 102억원을 투입, 식수난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2차 지원 대상은 여수시 등 14개 시·군 123개 마을로 이달 안에 사업을 발주하면 다음 달 중 사업이 마무리돼 운반·제한급수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은 30개 마을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고 있거나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물 07시 41분

해진 17시 35분

달물 12시 46분

달진 02시 05분

다시 겨울 추위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 늦게나 밤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광주	맑은 뒤 흐림	-3/6°C
목포	맑은 뒤 흐림	-1/6°C
여수	구름 조금	1/7°C
완도	구름 조금	0/7°C
구례	맑은 뒤 흐림	-5/6°C
해남	맑은 뒤 흐림	-4/7°C
장흥	맑은 뒤 흐림	-4/7°C
고성	구름 조금	-4/7°C
순천	구름 조금	-1/7°C
영광	맑은 뒤 흐림	-3/5°C
전주	맑은 뒤 흐림	-2/7°C
전주	구름 조금	-5/5°C
남원	맑은 뒤 흐림	-7/5°C
흑산도	맑은 뒤 흐림	3/6°C

비단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일반다	북서~북	0.5~1.5m	목포 09:09 01:51
면마다	면마다	1.0~2.0m	여수 21:18 14:46	

남해 서부	일반다	북서~북	0.5~1.5m	여수 16:31 22:54
면마다	면마다	1.0~2.0m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주간날씨

날짜

날씨

최저/최고

날짜

날씨

최저/최고